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도모한다

도교육청, 오늘 단위학교 예산설명회 개최 학교회계 방향·예산편성 기본지침 제시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단위학교 재정의 건전한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설명회를 오늘 전북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설명회는 단설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과 행정실장 총 1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오전·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 10시에는 군산·익산·남원·완주·임실·순창·부안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오후 2시에는 전주·정읍·김제·무주·진안·장수·고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위학교 예산설명회를 통해 2019학년도 학교회계 재정 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단위학교의 재정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통해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별 균형을 유지하면서 학교별 재정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유도하

고 학교교육과정과 중장기계획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예산편성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 운영을 통해 재정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학교회계 집행지침 주요 안내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며, 정병의 부교육감의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영양교육의 일환으로 인형극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소통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도교육청, '이해와 공유 토크콘서트' 군산·익산·전주서 개최

도교육청이 교원들의 학교자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치 이해와 공유, 토크콘서트'를 14일 군산교육지원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군산을 시작으로 오늘 익산(익산교육청 강당), 18일 전주(도교육청 2층 강당)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높이고,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자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삶을 배우는 학교자치 △학부모회 운영 △함께 참여하는 교무회의 △학교자치 시대의 학교

장의 역할 △시스템의 확립, 학교자치 조례 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는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학교구성원들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실행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학교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간 소통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무회의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회·교직원회·학부모회 등의 기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자치조례'를 내년 1월중 전라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김동현 대학원생 한국자원공학회 우수논문상

비전동자원 매장량 계산법 제시

전북대학교 김동현 대학원생(자연·에너지공학 석유공학실 현실 박사과정·지도교수 이영수)이 2018 한국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씨는 한국자원공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이영정탄 입자 크기별 CH4-CO2 흡착 특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비전동자원 중 석탄층 메탄가스



의 매장량을 보다 현장과 유사하게 도출할 수 있는 개선된 실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석탄층 메탄가스 및 다양한 비전동자원 매장량 계산에 새로운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한국 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주관 사업 '석탄층 메탄가스(CBM) 생산기술 최적화 및 현장실증 연구' 과제에 기술이 적용됐다. 김동현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자원 개발에 기초가 되는 매장량 계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인형극으로 어린이 식생활 눈높이 교육 '호응'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 건강 인형극으로 편식 거부감 줄여

전북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 교수)가 어린이 영양교육의 일환으로 인형극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어린이집 영아 250여 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번 인형극은 '백설공주와 오방색 채소'이다. 영아 눈높이에 맞춘 동화를 모티브로 삼아 다양한 식재료에 대해 편식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이야기와 노래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이 센터는 어린이 급식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올리고, 부모와 관내 급식소 등을 찾아서도 끊임 없는 교육을 펼치면서 어린이 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요성을 전파해 나가고 있다. 노정옥 센터장(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대형 인형극에 참여하기 어려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소형 인형극을 통해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확대 시킬 계획"이라며 "눈높이에 맞춘 영양 교육을 개발·보급해 덕진구 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내년도 수시 합격자 2576명 발표

전북대학교가 2019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2,576명을 발표했다. 14일 학생부종합전형 763명, 학생부교과전형 1,813명 등 총 2,576명을 최종 수시모집 합격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극복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 합격한 사례와 모험·창의적 소질을 키우기 위해 꾸준한 자기계발과 다양한 학교생활 등으로 합격의 꿈을 이룬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합격했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7.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6.8대 1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학생부교과전형 일반전형의 치의예과가 가장 높은 3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생부종합전형 큰사랑전형의 역사교육과는 27.5대 1, 학생부종합전형 큰사랑전형의 의예과는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은성 기자



군산당북초등학교가 2018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삼금 100만원을 받았다.

군산당북초, 흡연예방사업 복지부장관상 수상

군산당북초등학교(교장 권영숙)가 2018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18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삼금

100만원을 받았다. 당북초등학교는 금년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감탐구 생생체험 흡연예방 건강나눔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흡연예방심화형학교를 운영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흡연예방 건강

나눔 실천으로 모두한 행복한 학교·건강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이뤄졌다. 당북초등학교는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만들기를 위해 흡연예방심화형 학교 운영뿐 아니라 교육부 지정 건강증진거점학교로 함께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건강마인드를 확립하고 건강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소외지역의 교육복지 실현

전주교대서 '꿈지락 문화예술+ 예술장터' 열려

학교와 문화예술단체가 소통하는 예술장터가 열렸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주교육대학교 체육센터와 교육문화관(김서중홀)에서 '2018 꿈지락 문화예술+ 예술장터'를 운영했다. 이날 열린 예술장터는 문화예술단체와 꿈지락 문화예술+의 아트마켓이 60여개 부스에서 진행됐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학교가 매칭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오후 3시 반부터는 김서중홀에서 어울림 및 원도심학교 담당교사 대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어울림학교 및 원도심학교 지원과 운영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토론 중심의 협의를 통해 학

교 운영계획을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2019학년도에도 어울림학교 115교, 원도심학교 48교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가진 여러 물적·인적 자원이 학교와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2019학년도 학교교육과정에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적용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지역의 학교·마을(지역사회)간 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